

---

# 복원력

Ⅰ. 금융기관	69
Ⅱ. 대외지급능력	81
Ⅲ. 금융시장인프라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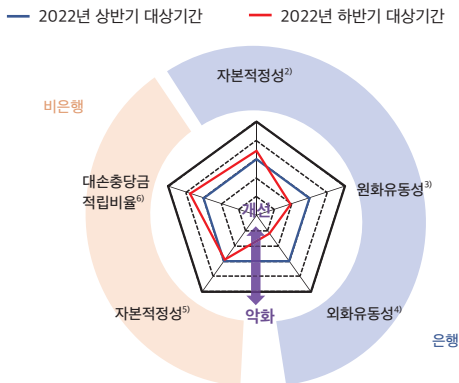


## 1. 금융기관

일반은행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자본비율이 감독기준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유동성 대응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도 상승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 복원력은 대부분의 업권에서 자본비율이 감독기준을 상회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나,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저축은행의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다소 높아진 모습이다<sup>1)</sup>(그림 I-1).

그림 I-1. 금융기관 복원력 지표 변화 지도<sup>1)</sup>



주: 1) 2022년 1/4분기말 대비 2022년 3/4분기말(은행 원화유동성, 외화유동성은 22년 10월)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2) 바젤Ⅲ 기준 총자본비율  
3)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4) 외화 LCR  
5) 비은행 업권별 자본비율을 총자산규모에 따라 가중평균  
6) 증권회사 제외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1.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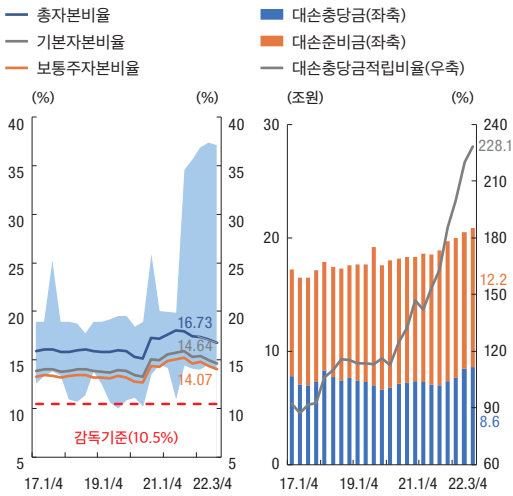
### 손실흡수능력 강화

일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기준 총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은 2022년 3/4분기말 각각 16.73%, 14.07%로 1/4분기말(17.35%, 14.78%) 대비 0.62%포인트, 0.71%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기업대출이 늘어나고, 환율 상승으로 외화표시자산의 원화환산액이 증가하면서 위험가중자산이 확대<sup>2)</sup>된 데 기인한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의 총자본비율이 2022년 감독기준(10.5%, D-SIB<sup>3)</sup> 11.5%, 인터넷전문은행 9.875%)을 크게 상회하였지만, 대부분 은행(10개)이 1분기 대비 자본비율이 낮아진 모습이다.

예상손실에 대한 흡수능력을 나타내는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22년 3/4분기말 228.1%로 1/4분기말(199.7%) 대비 28.4%포인트 상승하였다. 은행들이 금리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규모(+1.2조원)를 늘린 데다, 금융지원조치 연장 등의 영향으로 고정이하여신의 신규발생이 제약된 가운데 신규여신 취급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그림 I-2, 그림 I-3).

1) 자세한 내용은 <참고5>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평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2) 자세한 내용은 <주요 현안 분석 Ⅲ> 「환율이 금융부문에 미치는 리스크 파급경로 및 영향」을 참조하기 바란다.  
3)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로 신한은행(신한지주), 하나은행(하나지주), 국민은행(KB지주), 농협은행(농협지주) 및 우리은행(우리지주)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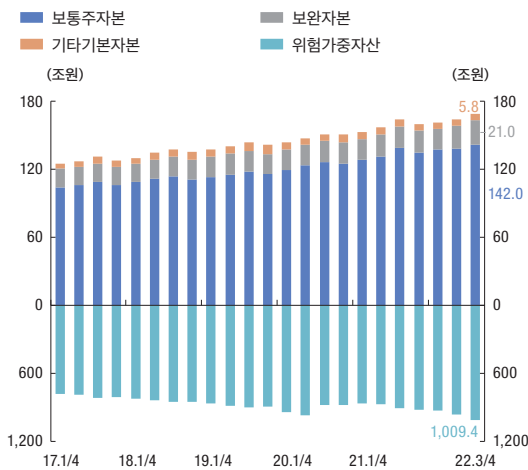
그림 1-2. 일반은행 바젤III 기준 자본비율<sup>1)2)3)4)</sup> 및 대손충당금적립비율<sup>1)2)</sup>



- 주: 1) 기말 기준
- 2) 대손충당금적립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산. 2016년 3/4분기까지는 대손충당금에 대손준비금 포함, 그 이후에는 보통주자본에 대손준비금 포함
- 3) 2022년 감독기준: 보통주자본비율 7%, 기본자본비율 8.5%, 총자본비율 10.5%(D-SIB의 경우 각각 8%, 9.5%, 11.5%)
- 4)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총자본비율 분포를 나타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그림 1-3. 자기자본비율 변동 요인<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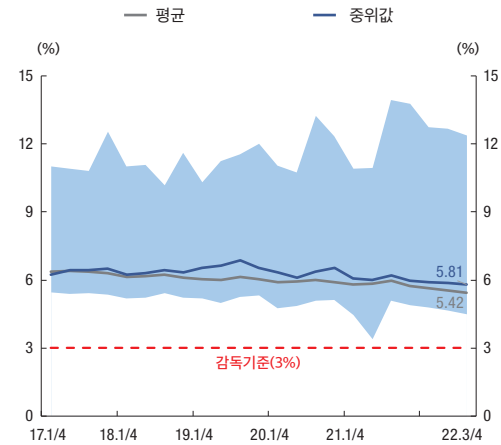


- 주: 1) 기말 기준
- 2) 2016년 4/4분기 이후 보통주자본에 대손준비금 포함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일반은행의 레버리지비율<sup>4)</sup>은 2022년 3/4분기 말 5.42%로 모든 은행이 감독기준(3%)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다만, 당기순이익 확대에 따른 자본 증가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등으로 총익스포저가 더 크게 늘어남<sup>5)</sup>에 따라 1/4분기말에 비해서는 0.21%포인트 하락하였다(그림 1-4).

그림 1-4. 일반은행 레버리지비율<sup>1)2)3)</sup>



- 주: 1) 기본자본(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총익스포저. 기말 기준
- 2) 2017년까지는 보조지표, 2018년부터 규제 시행
- 3) 음영표시 영역은 은행별 레버리지비율 분포를 나타냄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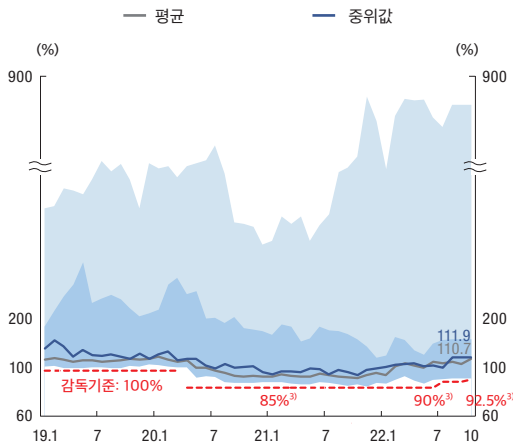
### 유동성 대응 능력 대체로 양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Liquidity Coverage Ratio)은 2022년 10월중 110.7%로 3월(106.4%) 대비 4.3%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은행들이 규제비율 정상화 및 자금조달시장 불안 위험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정기예금을 유치<sup>6)</sup>함에 따라 고유동성 자산이 확대된 데 기인한다. 다만, 10월중 통합LCR 규제 환원 조치가 유예<sup>7)</sup>되면서 규제비율 정상화에 따른 고유

- 4) 레버리지비율은 「은행업감독규정」상 단순기본자본비율을 의미하며, 은행부문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제한함으로써 유사시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인하여 위기가 증폭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비율은 총익스포저를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위험가중자산에 기반한 최저자기자본 규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1/4분기부터 보조지표로 공시된 후 2018년부터 동 규제가 시행되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적용되었다.
- 5) 일반은행의 기본자본이 3.5%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가중자산이 7.6%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비율이 하락하였다.

동성자산 확보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들이 감독기준(22년 7월~9월 90%, 10월~23년 6월 92.5%)을 상회하였지만, 일부 은행의 월중 LCR이 감독기준까지 근접했다는 점에서 유동성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그림 I-5).

그림 I-5. 일반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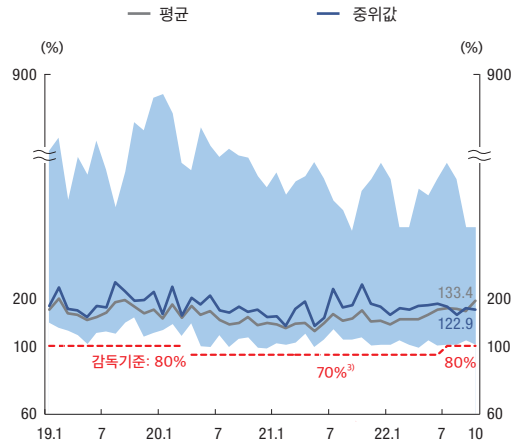


주: 1) 고유동성자산/항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2)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LCR 분포이며 진한 음영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외한 경우를 나타냄  
3) 2020년 4월~2022년 6월중 85%, 7~9월 90%, 10월~2023년 6월중 92.5%를 한시적으로 적용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외화 LCR<sup>8)</sup>은 2022년 10월중 133.4%로 3월(111.5%) 대비 21.9%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환율변동에 대비하여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외

화예금<sup>9)</sup>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한 영향이 크다. 은행별로 보면 모든 은행들이 감독기준(80%)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6).

그림 I-6. 일반은행 외화 LCR<sup>1)2)</sup>



주: 1) 고유동성 외화자산/항후 30일간 외화 순현금유출액 월 평균 기준  
2)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은 은행별 외화 LCR 분포를 나타냄  
3) 2020년 4월~2022년 6월중 한시적 적용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장기적 측면에서 은행 자금조달 구조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순안정자금조달비율<sup>10)</sup>(NSFR, Net Stable Funding Ratio)은 2022년 3/4분기말 108.2%로 모든 은행들이 감독기준(100%)을 충족하였다. 다만 기업대출 증가로 안정자금조달 필요금액이 안정자금가용금액보다 더 크게 늘어남<sup>11)</sup>에 따라 1/4분기말(109.1%)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하였다(표 I-1).

- 6) 일반은행 정기예금 잔액은 22년 3월말 656.0조원에서 22년 10월말 787.9조원으로 131.9조원 증가하였다.
- 7) 금융당국은 은행 통합 LCR의 단계적 상향조정(2022년 7~9월 90%, 10~12월 92.5%, 2023년 1~3월 95%, 4~6월 97.5%, 7월~100%)을 추진 중이었으나, 2022년 10월 이후 신용채권 및 단기자금 시장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의 LCR 규제비율을 2022년 10월~2023년 6월중 9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2022년 10월).
- 8) 외화 LCR은 바젤III 규제는 아니지만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실물부문에 안정적으로 외화를 공급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2017년 1월부터 공식 규제에 도입되었다. 수출입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및 외화부채 규모가 작은 일부 지방은행(광주은행, 제주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은행에 적용되고 있으며, 규제비율은 2017년 이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어 2019년 최종 감독기준(일반은행 80%)에 도달하였다.
- 9) 일반은행 외화예금 잔액은 3/4분기말 138.2조원으로 1/4분기말(113.5조원) 대비 21.8% 증가하였다.
- 10) NSFR은 은행들이 단기 도매자금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태를 제한하기 위하여 장기 운용자산의 일정 부분을 안정적인 부채 및 자본으로 조달하도록 규제한다. NSFR은 2018년 1월부터 국내은행에 도입되었다(인터넷전문은행은 20년부터 적용).
- 11) 분자인 안정자금가용금액은 2022년 3/4분기말 1,395.2조원으로 예금 및 은행채 발행 확대 등으로 1/4분기말(1,329.3조원) 대비 5.0% 증가하였으나, 분모인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 증가율(5.8%, 1/4분기말 1,218.7조원 → 3/4분기말 1,289.8조원)이 이를 상회하면서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 하락하였다.

표 I -1. 일반은행 NSFR<sup>1)2)</sup>

(%)

	2020년		2021년				2022년		
	3/4	4/4	1/4	2/4	3/4	4/4	1/4	2/4	3/4
평균	111.1	112.2	111.2	111.7	110.1	111.2	109.1	108.2	108.2
중위값	109.4	110.3	108.2	109.6	106.9	109.2	107.7	107.7	106.6

주: 1) 가용안정자금조달금액/필요안정자금조달금액, 기말기준

2) 감독기준은 100%

자료: 일반은행 업무보고서

## 대외 외화조달 여건 상당폭 악화

일반은행의 대외 외화조달 여건은 상당폭 악화되었다. 단기 및 장기 외화차입 가산금리 모두 2022년중 미 연준 긴축 강화에 따른 글로벌 달러유동성 축소 우려 등으로 상승하였다(그림 I -7). 일반은행의 CDS 프리미엄은 외화차입 가산금리와 마찬가지로 상당폭 상승하였으나 11월 들어 하락 전환하였다(그림 I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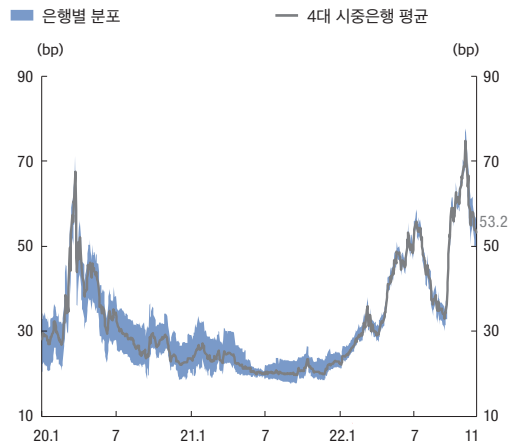
그림 I -7. 대외 외화차입 장·단기 가산금리<sup>1)2)</sup>

주: 1) 22.4월 이전은 LIBOR 기준 가산금리, 22.5월 이후는 SOFR 기준 가산금리(국민, 신한, 우리 및 하나은행의 미 달러화 차입금액 가중평균)

2) 국내 금융기관간 차입 및 본지점 차입, O/N은 집계대상에서 제외

3) 장기 가산금리 중 19년 2월, 20년 12월, 21년 5월, 7~9월, 11~12월은 차입실적 부재

자료: 한국은행

그림 I -8. 일반은행<sup>1)</sup> CDS 프리미엄<sup>2)</sup>

주: 1) 국민, 신한, 우리 및 하나은행 기준

2) 5년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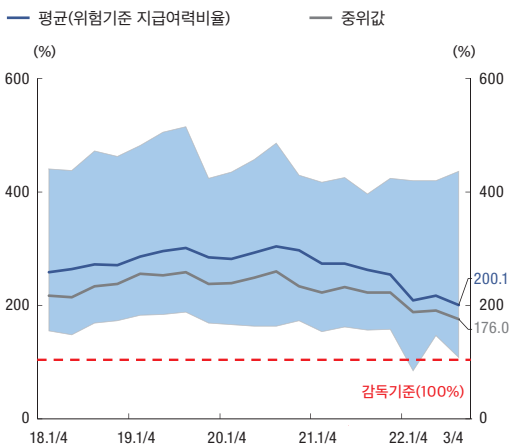
자료: Markit

## 2. 비은행금융기관

### 복원력 대체로 저하

생명보험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나타내는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sup>12)</sup>(RBC비율, Risk-Based Capital Ratio)은 2022년 3/4분기말 200.1%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평가손실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sup>13)</sup>하였다(그림 I-9).

그림 I-9. 생명보험회사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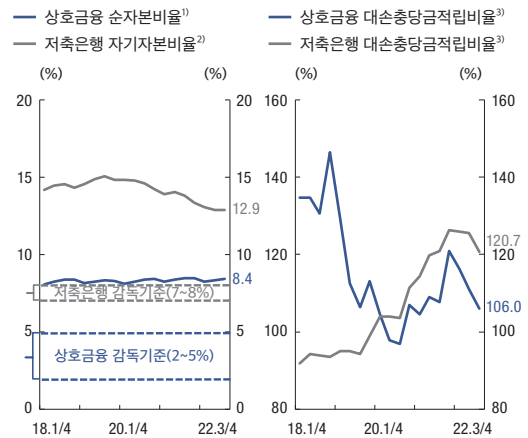


주: 1)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음영은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업체별 RBC비율의 최댓값 및 최솟값을 표시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은 소폭 등락하는 가운데 2022년 3/4분기말 8.4%를 나타내었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21년 4/4분기말 정점(120.9%)을 기록한 후, 고정이하여신 증가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여 2022년 3/4분기말 106.0%를 기록하였다.<sup>14)</sup>

저축은행의 BIS자기자본비율은 2022년 3/4분기말 12.9%로 대출 증가 등으로 2019년 3/4분기말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2021년 4/4분기말(126.2%)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22년 3/4분기말 120.7%를 기록하였다(그림 I-10).

그림 I-10.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복원력 지표



주: 1) 감독기준 2%(새마을금고 4%, 농협 5%)  
2)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감독기준 7%(자산 1조원 이상은 8%)  
3) 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대출채권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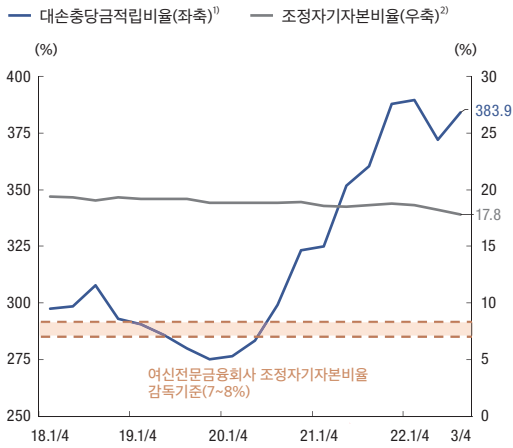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은 2022년 3/4분기말 17.8%로 2022년 1/4분기말(18.6%)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손충당금적립비율은 383.9%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11).

12)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isk-Based Capital Ratio)은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요구자본은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신용위험액, 시장위험액 및 운영위험액 규모를 측정하여 산출된다.

13) 2023년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에는 보험회사의 부채도 시가 평가로 바뀜에 따라 금리 상승시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자본비율의 금리 민감도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4) 2022년 3/4분기말 상호금융의 대손충당금 잔액(14.8조원)은 전년말대비 6.7% 증가한 반면, 고정이하여신 잔액(14.0조원)은 21.6% 증가하였다.

그림 I-11. 여신전문금융회사 복원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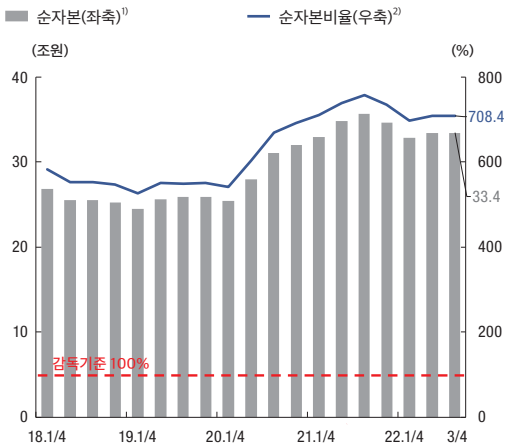
주: 1) 대손충당금/고정미하여신(총채권 기준)

2) 조정자기자본/조정총자산, 감독기준 7%(신용카드사 8%)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증권회사의 순자본비율은 2022년 3/4분기말 708.4%로 2022년 1/4분기말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I-12).

그림 I-12. 증권회사 복원력 지표



주: 1) 영업용 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

2)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필요유지자기자본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비은행금융기관 복원력이 대부분의 업권에서 다소 저하된 것으로 보이나 자본비율은 여전히 각 업권별 감독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최근 금리상승 기조 지속,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증권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단기시장성자금 차입 의존도가 높아 단기금융시장 불안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데다,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과의 수신금리 격차 축소, 부동산 PF대출 부실우려 등으로 수신이탈 가능성이 높아졌다.<sup>15)</sup>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손실흡수능력이 떨어지는 금융기관들은 선제적인 자본확충 및 유동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15) 자세한 내용은 <참고5>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평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 참고 5.

###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 평가<sup>1)</sup>

국내외 시장금리 상승,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부동산경기 하락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 서,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sup>2)</sup>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보고에서는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및 상호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유동성 상황 및 주요 리스크를 평가해 보았다.<sup>3)</sup>

#### 유동성 상황<sup>4)</sup>

증권회사 및 여전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주가 하락,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높은 유동성 리스크를 경험<sup>5)</sup>한 바 있다. 또한 2022년 10월 이후 PF-ABCP시장 불안 등으로 단기금융 및 채권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sup>6)</sup> 이후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시장안정화조치에 힘입어

고신용 채권을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회복되는 모습이나, CP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신용경계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동 업권의 유동성 리스크가 재차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2022년 3/4분기말 기준 증권회사의 유동성 사정을 나타내는 유동성비율은 120.6%로 감독기준(100%)을 상회하고 있으나, 콜머니, RP매도 등 유동성 부채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말(133.7%)보다는 상당폭 낮은 수준이다. 개별 증권회사별로 보면 유동성비율이 120%를 하회하는 증권회사가 상당폭 늘어났으며(19년말 7개 → 22년 9월말 20개), 대다수 증권회사(58개중 40개)의 유동성비율이 2019년말에 비해 하락하였다. 여전사의 경우에도 3개월내 만기도래 차입부채액 대비 즉시가용유동성자산의 비율을 나타내는 즉시가용유동성비율이 2022년 3/4분기말 카드사 155.6%, 캐피탈사 134.4%로 100%를 상회하나, 3개월내 차입부채의 증가 등으로 2019년말(각각 220.3%, 169.8%)에 비해서는 크게 하락하였다. 3개월 이내 차입부채 기준 즉시가용유동성비율이 100%를 하회하는 여전사는 2019년말 19개에서 2022년 9월말 21개로 증가하였다.<sup>7)</sup>

1) 보고는 김혜원·권윤정·이상진·권세한·이도홍(비은행분석팀)이 작성하였고, 이종한(비은행분석팀장)이 검토하였다.

2) 유동성 리스크는 금융회사가 현재 또는 미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는 조달유동성 리스크(funding liquidity risk)와 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붕괴 등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으로 초래되는 시장유동성 리스크(market liquidity risk)로 구분된다. 보고에서는 조달유동성 리스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3) 이외에 보고에서는 다루지 않고 있으나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저축성 보험의 해지 급출, 연도말 퇴직연금 이탈 가능성 등으로 유동성 관련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보고에서 다루는 증권회사·여전사·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규모, 영업방식 등에 따라 금융기관별 유동성 리스크 차이가 큰 편이다.

4) 보고에서는 증권회사 및 저축은행은 유동성비율(3개월내 유동성자산/3개월내 유동성부채)을, 여전사는 즉시가용유동성비율((현금·예치금 + 즉시매도가능유가증권 + 미인출약정한다도)/(3개월 이내 차입부채))을 유동성지표로 사용하였다. 감독당국의 유동성 관리를 위한 즉시가용유동성비율은 1개월 이내 차입부채 기준이나 보고에서는 과거와의 비교 등을 위해 3개월 이내 차입부채를 사용하였다.

5) 2020년 3월 당시 증권회사는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관련 마진콜 등의 영향으로 일시에 추가 자금(당시 증권회사가 해외거래소에 송금한 금액은 10.1조원 수준) 확보가 필요했으며, 여전사는 증권회사의 마진콜 자금 확보 과정에서 채권시장의 신용경계감 증가, 여전채 수요 감소 등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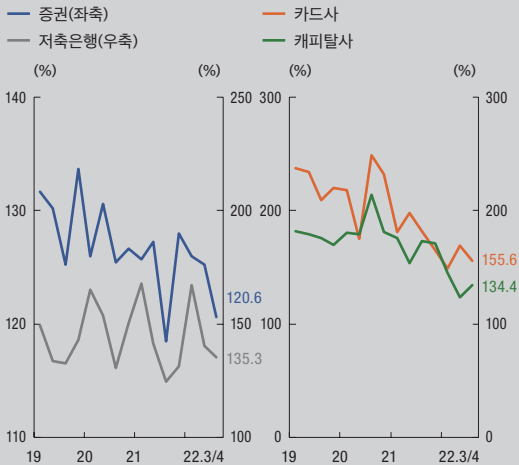
6) 레고랜드 PF-ABCP 부도 사태의 여파로 높아진 신용경계감이 일반CP 등 단기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한편 신용채권시장으로도 전이되어 CP금리가 상승하고, 신용스프레드도 확대됨에 따라 증권회사와 여전사의 자금조달 및 차환 부담이 커졌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3> 「레고랜드 PF-ABCP 부도 사태 이후 CP시장 동향 및 평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7) 감독당국 유동성 관리 지표인 1개월 이내 차입부채 기준 즉시가용유동성비율이 권고비율(100%)을 하회하는 여전사는 2개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여타 업권에 비해 높은 금리 제공<sup>8)</sup>을 통해 2015년~2021년간 견조한 수신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권과의 금리 격차 축소<sup>9)</sup> 등에 따른 수신 증가폭 둔화세가 이어지면서 저축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은 2022년 9월말 135.3%로 감독기준(100%)을 상당폭 상회하고 있으나, 분기별로 큰 폭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감독기준을 소폭 상회하는 유동성비율 120% 미만 저축은행이 16개로, 대규모 수신 이탈시 동 저축은행들을 중심으로 유동성 부족 상황이 우려된다.

#### 업권별 유동성지표<sup>1)</sup>



주: 1) 증권-저축은행은 유동성비율(3개월내 유동성자산/3개월내 유동성부채) 기준, 카드·캐피탈사는 즉시가용유동성비율(현금·예치금 + 즉시매도가능 유가증권 + 미인출약정잔도)/3개월내 차입부채)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 유동성 리스크 유발 요인

비은행업권의 유동성 리스크를 촉발시키는 요인으로서는 업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과 업권별 특수 요인이 있다. 공통적 요인으로는 부동산경기 둔화에 따른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자금조달 관련 리스크 등이, 업권별 요인으로는 파생결합증권 관련 마진콜 발생(증권회사), 거액예금이탈 가능성(저축은행) 등이 해당된다. 이하에서는 각 업권별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평가해보았다.

#### 증권회사 : 부동산 PF 채무보증, ELS 마진콜, 단기시장성 차입 관련 차환리스크

증권회사의 채무보증은 추가 유동성 수요를 촉발한다. 특히 부동산 PF 채무보증은 부동산경기 위축시 유동성공여 약정 이행 과정에서 자금조달 필요 규모를 크게 확대시킬 수 있다.<sup>10)</sup> 증권회사의 채무보증 규모를 보면 2022년 9월말 45.4조원으로 2020년말(39.0조원)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부동산 PF 채무보증이 PF대출 유통화증권 발행 확대(20년말 27.0조원 → 22.9월말 38.6조원) 등으로 주로 증가(20년말 19.3조원 → 22년 9월말 23.9조원)하였다.

증권회사는 대내외 주가가 급락할 경우, 파생결합증권 자체헷지<sup>11)</sup>와 관련한 마진콜 발생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ELS 발행잔액 및 자체헷지 규모 추이를 보면 2020년 3월 중

8) 2015년 1월~2021년 6월중 저축은행의 평균 수신금리는 2.23%로 은행(1.62%) 및 상호금융(1.7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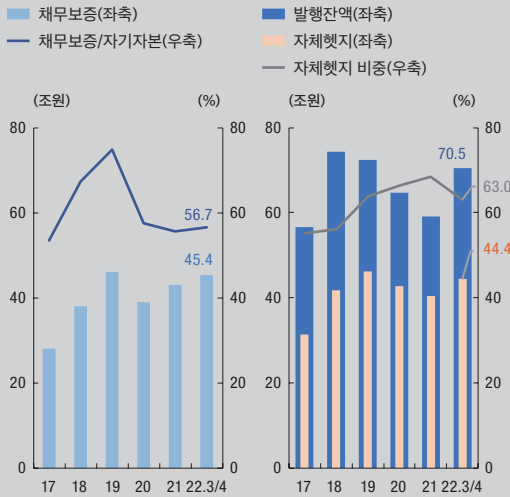
9) 저축은행과 은행간 정기예금(1년) 금리 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며 2022년 9월 들어서는 은행권의 수신금리 인상으로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1998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하회하였다(2021년 12월중 67bp → 2022년 6월중 44bp → 9월중 -7bp).

10) 증권회사 부동산 PF 관련 익스포저 규제(PF대출, 채무보증 각각 자기자본의 30%, 100% 이내)로 현재 자기자본보다 PF대출 및 채무보증 취급 규모가 큰 증권회사는 없으나, 감독기준에 근접한 증권회사 등을 중심으로 관련 리스크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11) 증권회사가 ELS의 주가 관련 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장내에서 풋옵션 매도 등 파생상품 매매를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파생상품 평가손실 발생시 외화현금 납부 의무(마진콜 발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권회사의 마진콜 사태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대내외 주가가 하락하면서 파생결합증권(ELS) 관련 조기상환 규모가 감소<sup>12)</sup>함에 따라 금년 들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21년말 40.4조원 → 22.9월말 44.4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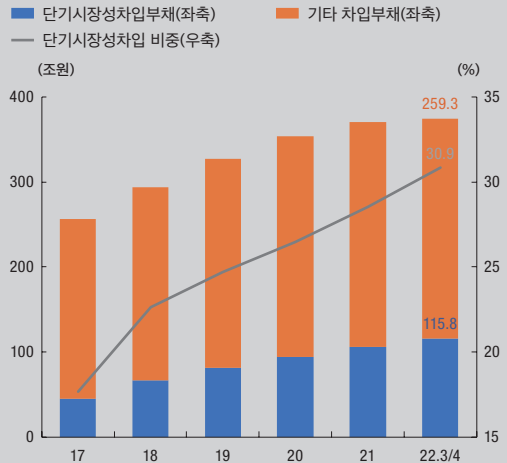
### 증권회사의 재무보증, ELS<sup>1)</sup> 발행잔액 및 자체헷지 규모



주: 1) ELB 포함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증권회사는 초단기 RP매도 등 단기시장성 차입 의존도가 높아 신용경계감 확산시 증권회사 보유 회사채에 대한 담보 기피 등으로 RP매도를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증권회사의 단기시장성 차입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22년 9월 말 현재 30.9%에 이르고 있다.

### 증권회사 단기시장성 차입<sup>1)</sup> 규모



주: 1) RP매도(CMA 등 고객자산관리 관련 RP매도 제외), 콜, 발행어음, CP, 단기사채 기준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연합인포맥스(CP, 단기사채)

### 여전사 : 여전채 발행 여건, 단기시장성 차입의 차환리스크, 부동산 PF대출 관련 리스크

여전사는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자금을 시장성 자금으로 조달<sup>13)</sup>함에 따라 금융시장 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금년 들어 국내외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신용경계감 및 유동성 선호 강화, 여전채 편입한도 제한 규제<sup>14)</sup> 등에 따른 여전채 투자수요 위축에 은행채, 한전채 등 초우량물 공급 확대에 따른 채권시장 내 구축효과 등이 가세하면서 여전사의 자금조달 여건이 더욱 악화되었다. 여전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인 여전채(AA-, 3년) 금리는 2021년 1.97%에서 2022년 1~9월중 4.03%로 급등하였다.

12) 대표적인 상품인 스텝다운형 ELS의 경우 발행 이후 일정 시점(6개월 등)마다 기초자산 가격을 평가하는데,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수준(80%, 90% 등) 이상인 경우 약정 수익률을 지급하면서 조기상환되며 주가 하락 등으로 동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만기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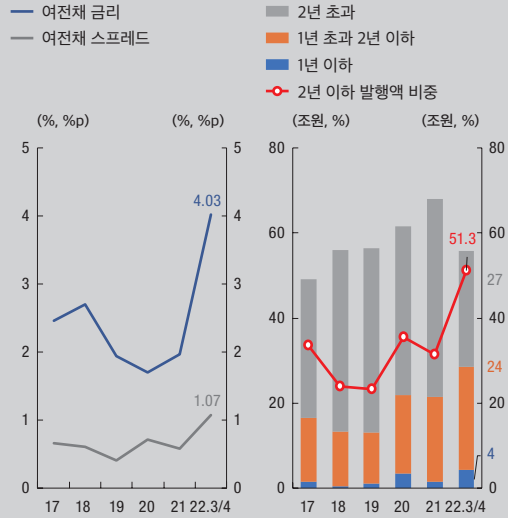
13) 2022년 9월말 여전사의 총부채 대비 CP, 단기사채, 캐피탈채 등 시장성 자금 조달 비중은 80.1%이다.

14) 2020년 3월 ELS 마진콜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자체헷지 자산으로서의 여전채 편입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21년말 15% 이내 → 23.3월말 12% 이내 → 23.4월 이후 8% 이내).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여전사들이 CP·단기사채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함에 따라 여전사의 자금조달 구조가 단기화되고, 차환리스크도 증대되었다. 금년 들어 여전사의 전체 자금조달 중 CP·단기사채 등 단기사장성 차입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21년말 12.9% → 22.9월말 17.7%), 여전채의 경우에도 발행액 중 2년 이하 비중이 크게 상승(21년말 31.5% → 22.9월말 51.3%)하는 등 발행만기가 단기화되었다. 특히, 중소형 여전사는 신용등급이 낮고<sup>15)</sup>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차입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데다 CP 등 단기성 차입 의존도가 높아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대형사에 비해 더욱 크다.

여전사의 부동산 PF대출 규모는 2022년 9월말 현재 27.1조원으로 PF대출 부실 관련 신용손실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 중 브릿지론<sup>16)</sup> 등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PF대출은 여전사의 유동성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전사의 PF 채무보증 규모는 0.2조원 수준으로 PF대출 채무보증 이행 관련 유동성 리스크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여전채 금리<sup>1)</sup> 및 스프레드<sup>2)</sup>, 만기별 여전채 발행액



주: 1) 기간중 평균, 22.3/4는 22.1~9월중

2) 여전채(AA-, 3년)-국고채(3년)

자료: 연합인포맥스

## 저축은행 : 거액예금 등 수신이탈 가능성

금년 하반기 이후 수신금리 인상을 통해 은행권 정기예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 부실 가능성, 2018년 이후 급증한 5천만원 초과 거액예금, 은행권과의 금리 격차 축소 등에 기인하여 저축은행 수신이탈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sup>17)</sup> 이러한 수신이탈이 현재화될 경우 저축은행은 유동성 부족에 처할 뿐 아니라, 이에 대응한 저축은행의 수신금리 인상 등으로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이 저하되고, 서민층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도 초래될 수 있다.

15) 2022년 9월말 현재 대형사(자산 1조원 이상)의 경우 26개사중 25개사의 신용등급이 A- 이상인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121개사중 119개사의 신용등급이 A- 미만 또는 무등급이다.

16) 부동산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실행되는 토지매입 등을 위한 대출로 일부는 PF대출이 아닌 기업일반대출(토지담보대출)로 분류되고 있으며 대출기한은 12개월 이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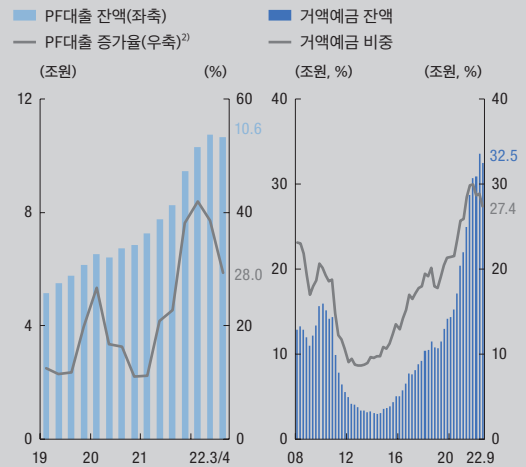
17) 2022년 9월 중에는 저축은행의 정기예금(1년 기준) 금리(3.77%)가 1998년 6월 이후 처음으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3.84%)를 하회하면서 저축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감소(전월대비)하였다.

18) 신용공여 총액 대비 PF대출 한도를 축소(30% → 20%)하고, 사업자금의 일정 비율(20%) 이상을 차주 자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저축은행의 기업·가계 대출이 견조한 수신을 기반으로 2020년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과거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촉발한 바 있는 부동산 PF 대출이 규제 강화<sup>18)</sup>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증가하였다. 2022년 9월말 저축은행의 부동산PF 규모는 10.6조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비율(75.9%)은 은행(28.3조원, 10.5%), 증권(28.4조원, 35.8%), 여전(26.8조원, 39.9%), 보험(43.5조원, 46.3%) 등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sup>19)</sup> 또한 고위험사업장<sup>20)</sup> 관련 PF대출 비중이 다른 업권에 비해 높아<sup>21)</sup>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저축은행의 저신용·저소득 차주 대출 비중이 높은 점도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2018년 이후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5천만원 초과 거액예금이 저축은행으로 크게 유입되었다. 특히 대부분 5억원 초과예금에 해당하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예금자보호 미적용) 자금이 대규모로 저축은행에 유입(18~21년중 5.6조원)되면서, 전체 거액예금의 1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거액예금 증가는 퇴직연금제도 변경(18.9월)으로 퇴직연금 취급 가능 범위에 저축은행 예·적금이 추가된 데다, 금융그룹 계열 저축은행 출범 등으로 금융기관 예치금이 큰 폭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다. 거액예금은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개별 저축은행 또는 업권에 대한 부실우려가 부각될 경우 이탈 가능성이 여타 수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sup>22)</sup>,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 저축은행의 부동산 PF대출 및 거액예금<sup>1)</sup>



주: 1) 5천만원 초과 예금주별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및 예금동향보고서

금년 중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 사정이 악화된 가운데 저축은행과 은행권의 수신금리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하반기 들어서는 LCR 규제비용 준수<sup>23)</sup> 관련 고유동성자산 확보, 환율상승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추가증거금 마련 등을 위해 은행들이 은행채 발행 확대,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 확충 노력을 강화함에 따라 은행권으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되었다. 지난 10월 금융당국은 은행 등에 대한 유동성 관련 규제를 완화<sup>24)</sup>하였으나, 기준금리 인상 기조,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시중자금의 은행권 선호현상(flight to quality)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저축은행은 수신금리 인상을 통해 은행권으로의 자금쏠림에 대응하여야 하나, 대출금리 인상

19) 다만 2011년 저축은행 사태시(504.9%)에 비해서는 저축은행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비율이 크게 낮고, 자기자본비율은 크게 높아(2011년말 3.2%, 22년 9월말 12.9%),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당시에 비해 크게 개선되어 있는 상황이다.

20) 브릿지론의 경우 위험지역 소재 사업장, 본 PF대출의 경우 공정률 60% 이상이나 분양률 40% 이하인 사업장을 '고위험 사업장'으로 정의한다.

21) 2022년 6월말 저축은행의 고위험사업장 관련 PF대출 비중은 29.4%로 증권회사(24.2%), 여전사(11.0%), 보험회사(17.4%), 은행(7.9%)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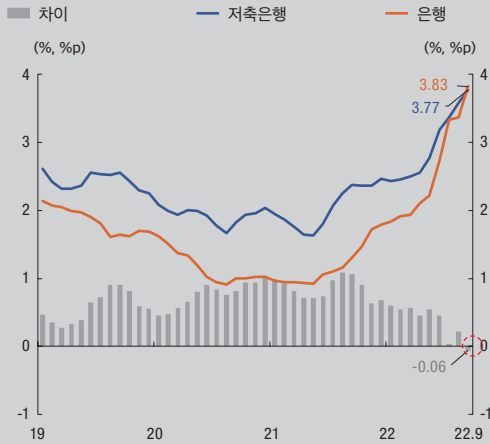
22)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에도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이 부각된 이후 저축은행 예금이 거액예금을 중심으로 빠르게 유출(3개월간 13.1%)되었다.

23) 금융당국은 코로나19로 2020년 4월 100% → 85%로 하향 조정했던 LCR 규제비율을 2022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7~9월 90%, 10~12월 92.5%)하기로 하였다.

24) 금융당국은 LCR 규제비용 정상화 조치를 유예(LCR 규제비율 92.5% 유지, 10월 20일)하고, 예대출 규제를 완화(은행 100% → 105%, 저축은행 100% → 110%, 10월 27일)하였다.

여력의 제약<sup>25)</sup> 등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 저축은행·은행 수신금리<sup>1)</sup> 추이



주: 1) 예금은행 및 저축은행 정기예금(1년) 금리  
자료: 한국은행

### 시사점

증권·여전사는 영업구조 특성상 금융시장 의존도가 높아 대내외 경제 여건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데다, 최근 글로벌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 및 국내외 금융시장 관련 불확실성이 증대된 만큼 유동성 부족 상황에 대한 높은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대출 건전성이 여

타 업권보다 취약하고<sup>26)</sup> 외부요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액예금 이탈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 대응능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sup>27)</sup> 등을 통해 면밀한 점검을 지속해야 하며, 주요 대응계획들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유동성 부족 사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기관의 비상자금 조달계획을 점검하고, 시계가 짧은 유동성 상황 점검 지표 대상 범위<sup>28)</sup>를 확대하는 등 유동성 상황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sup>29)</sup>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은행권의 유동성 규제 비율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sup>30)</sup>과 같은 보다 정교한 유동성 상황 점검 지표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은행권의 특판 예금 출시, 수신금리 인상 등을 자제토록 유도하고,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sup>31)</sup> 등 저축은행이 예수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개별 기관의 경우 신용 리스크로 인한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당금 적립규모 확대 및 자본확충을 도모하고, 긴급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신용공여 약정(Credit Line) 확대 노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5)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데다 대출금리 수준이 법정최고금리(20%)에 가깝게 분포(22.9월중 개인신용대출액중 15~20%대 금리 비중 44.7%)되어 있는 데 기인한다.

26) 업권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3/4분기말 현재 저축은행 3.17%, 상호금융 2.03%, 여전사 1.07%, 보험회사 0.20%, 은행 0.23% 등이다.

27) 한국은행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금융당국과 공유하고 있다.

28) 여전사의 경우 2021년 4월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실시를 통해 1개월 이내 유동성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즉시가용유동성비율을 도입하였고,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종투자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한해 1개월이내 유동성비율을 관리하고 있다.

29) 신용공여 약정 가용규모 및 세부조건, 유가증권별 담보 활용 현황 등 유동성 조달 여력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정례화하는 한편 유동성 지표가 낮은 기관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실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30) 바젤Ⅲ 유동성 규제기준으로 은행권에 2015년 1월부터 도입되었다.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 비율로 은행들이 30일 동안의 급격한 자금 유출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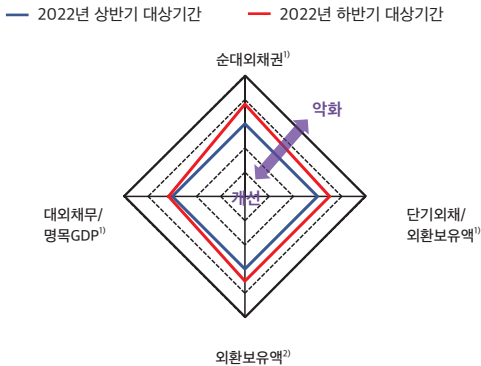
31)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한도 적정수준, 목표기금 규모 등 예보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다(22.3~23.8월). 국가별 1인당 GDP대비 예금보호한도 배율을 보면 우리나라(1.57배)는 주요 선진국(미국 4.20배, 영국 2.89배, 일본 2.45배 등)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 II. 대외지급능력

금년 하반기 들어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은 다소 저하된 모습을 보였다.

순대외채권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명목 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상승하였다. 외환보유액이 외환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감소한 가운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도 상승하였다(그림 II-1).

그림 II-1. 대외지급능력 지표 변화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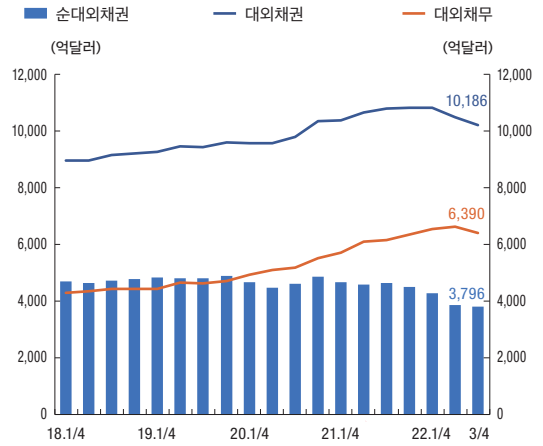


주: 1) 2022년 1/4분기말 대비 2022년 3/4분기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2) 2022년 5월말 대비 2022년 11월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자료: 한국은행

### 순대외채권 감소

우리나라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대외채무)은 2022년 3/4분기말 3,796억달러로 1/4분기말 대비 461억달러 감소하였다(그림 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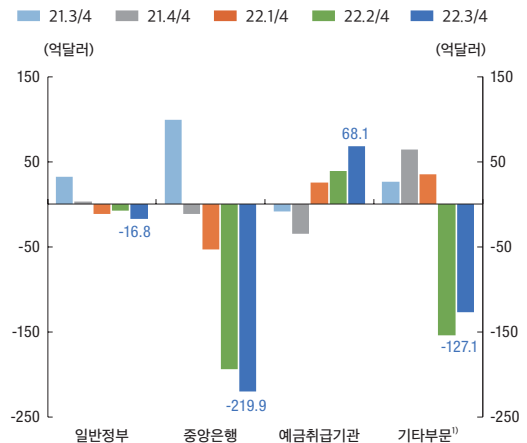
그림 II-2. 순대외채권<sup>1)</sup>



주: 1) 분기말 잔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권은 금년 3/4분기말 1조 186억달러로 1/4분기말 대비 612억달러 감소하였다. 대외채권 변동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은행은 외환보유액 감소 등으로 414억달러 감소하였고, 기타부문이 기타금융기관의 외화증권투자 축소 등으로 281억달러 감소하였다. 일반정부와 예금취급기관은 각각 24억달러 감소, 107억달러 증가하였다(그림 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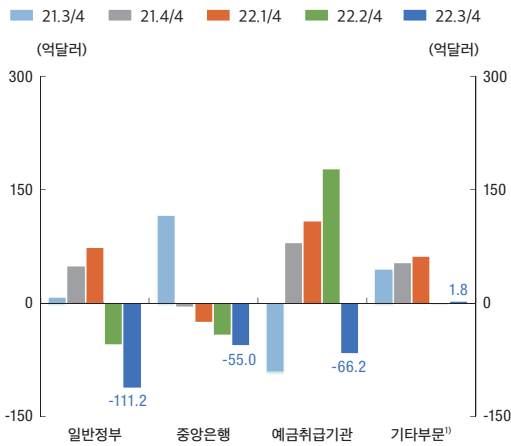
그림 II-3. 부문별 대외채권 증감



주: 1)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의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대외채무는 2022년 3/4분기말 6,390억달러로 1/4분기 대비 151억달러 감소하였다. 대외채무 변동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예금취급기관 및 기타부문은 외화차입, 외화증권발행 등으로 각각 111억달러, 0.1억달러 증가하였고, 일반정부 및 중앙은행은 비거주자 원화증권 투자 축소 등으로 각각 166억달러, 97억달러 감소하였다(그림 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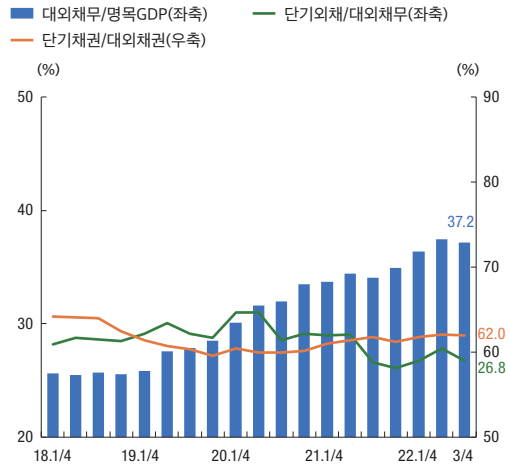
그림 II-4. 부문별 대외채무 증감



주: 1)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등의 기타금융기관과 비금융기업 등으로 구성  
자료: 한국은행

명목GDP 대비 대외채무 비율은 2022년 3/4분기말 37.2%로 1/4분기(36.4%) 대비 상승하였다. 대외채무중 단기외채 비중은 26.8%로 1/4분기(26.7%) 대비 소폭 상승하였다. 대외채권 중 단기채권 비중은 62.0%로 1/4분기(61.7%) 대비 상승하였다(그림 II-5).

그림 II-5. 단기 대외 채무·채권 비중<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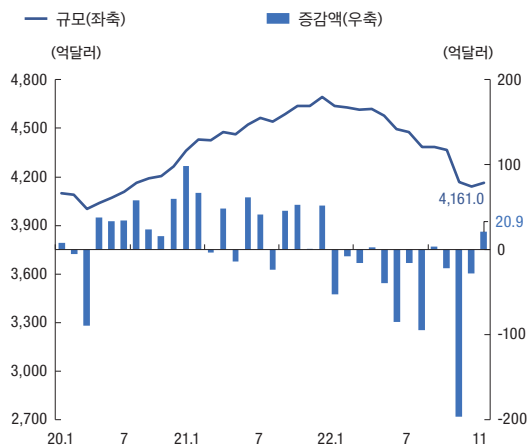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외환보유액 감소

2022년 1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4,161.0억달러로 2022년 5월말 대비 316.1억달러 감소하였다. 이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미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화 환산액 감소 등에 기인한다. 다만, 11월중에는 미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20.9억달러 증가하였다(그림 II-6).

그림 II-6. 외환보유액 규모 및 증감액<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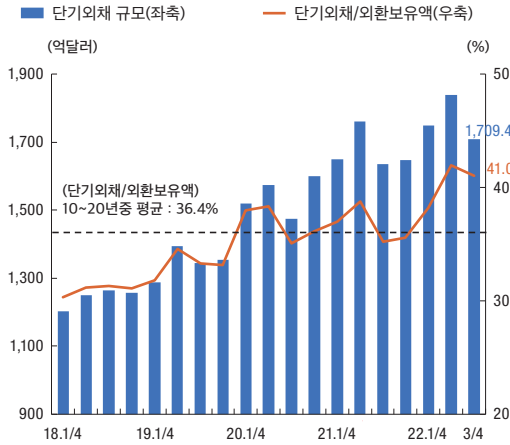


주: 1) 규모는 월말, 증감액은 월중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한편 2022년 3/4분기말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41.0%로 1/4분기(38.2%) 대비 2.8%포인트 상승하였다(그림 II-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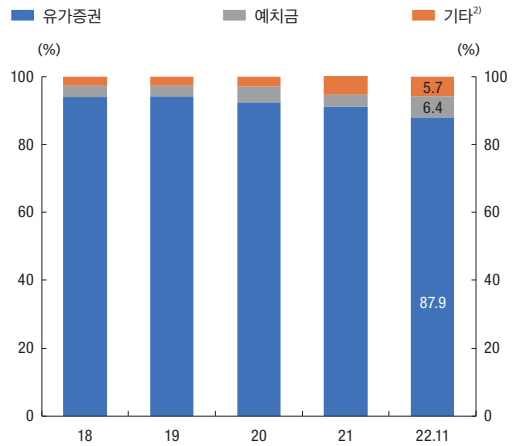
그림 II-7.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sup>1)</sup>



주: 1) 분기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2022년 11월말 현재 외환보유액의 구성을 보면 유가증권(87.9%) 및 예치금(6.4%)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가증권은 국채, 정부기관채, 자산유동화채 등 유동성이 높은 안전자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II-8).

그림 II-8. 외환보유액 구성<sup>1)</sup>



주: 1) 연월말 기준  
2) 금, SDR 등  
자료: 한국은행

### III. 금융시장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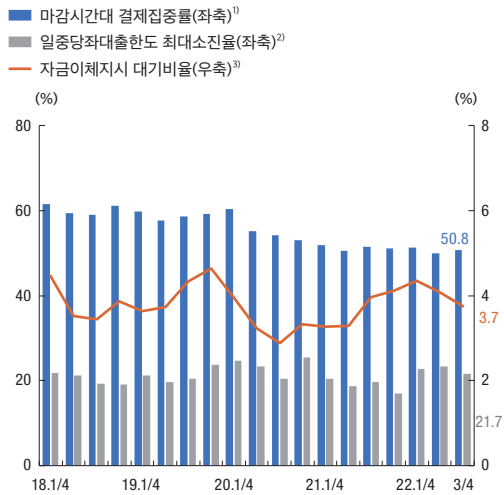
한은금융망 등 주요 지급결제시스템 결제규모는 금융기관의 증권결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 한은금융망

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를 최종 결제하는 한은금융망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2년 3/4분기중 511.6조원으로 1/4분기(524.4조원)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관련 결제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의 결제유동성 확보 수준을 나타내는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 및 자금이체지시 대기비율은 2022년 3/4분기중 각각 21.7%, 3.7%로 대체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체 결제금액 중 마감시간대(16:00~17:30) 결제 비중은 3/4분기중 50.8%로 전년동기(51.5%) 대비 하락하였다(그림 I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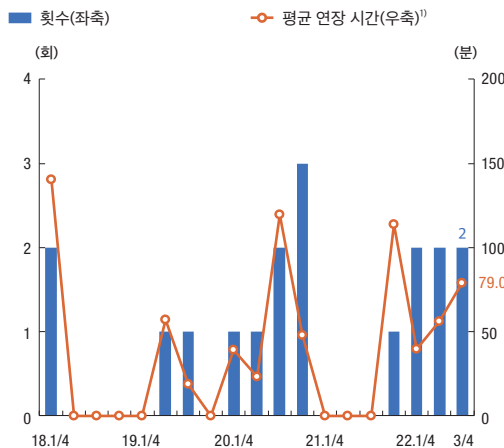
그림 III-1. 한은금융망 관련 리스크 지표



주: 1) 해당 기간 중 16시 이후 결제금액/총결제금액  
 2) 참가기관들의 일별 일중당좌대출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3) 참가기관들의 대기금액/총결제금액(유동성절감을 위한 대기 제외)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한편 한은금융망 마감시간 연장은 2022년 3/4분기중 2회 발생하였으며, 이는 한국은행 RP매입 입찰실시에 따른 결제 처리, 참가기관의 산시스템 장애 등에 따른 것이었다(그림 III-2).

그림 III-2.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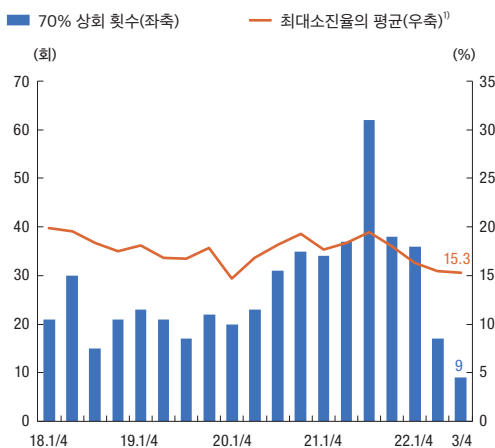
주: 1) 해당 기간 총 연장시간/연장횟수  
 자료: 한국은행

## 소액결제시스템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일 평균 결제금액은 2022년 3/4분기중 95.4조원으로 개인 및 기업의 전자자금이체 증가 등으로 지난해(94.3조원)보다 늘어난 가운데 관련 결제리스크는 대체로 원활히 관리되었다.

소액결제시스템의 리스크 지표를 보면 차액결제 참가기관들의 순이체한도<sup>1)</sup> 소진율이 주 수준(70%)을 상회한 횟수는 3/4분기중 9회로 전년동기(62회)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순이체한도 소진율 평균은 2022년 3/4분기중 15.3%로 전년동기(19.5%) 대비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에서 관리되었다(그림 III-3).

그림 III-3. 순이체한도 소진율



주: 1) 해당 기간중 참가기관들의 일별 순이체한도 최대소진율의 평균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증권결제시스템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결제시스템의 결제규모는 확대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 동 시스템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22년 3/4분기중 230.8조원으로 기관간 RP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221.7조원)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장내주식, 장내국채 및 장외 주식기관투자자 거래의 경우 2022년 3/4분기중 기준시한(각각 16:00, 17:00, 16:50) 이전에 결제가 모두 완료되었다(표 III-1).

표 III-1. 기준시한 이후 증권결제 비중<sup>1)</sup>

	기준시한 <sup>2)</sup>	비중(%)				
		2021년		2022년		
		3/4	4/4	1/4	2/4	3/4
장내주식	16:00	-	-	-	-	-
장내국채	17:00	-	-	-	-	-
장외 주식 기관투자자	16:50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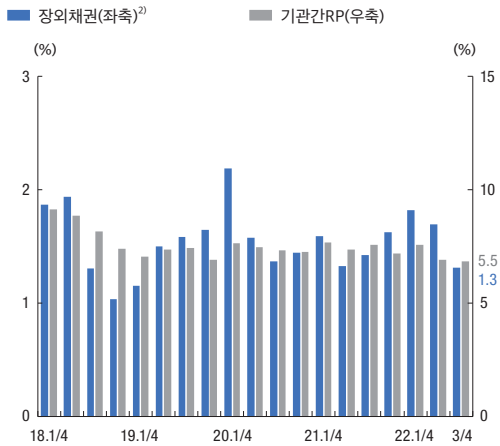
주: 1) 해당 기간 중 기준시한 이후 결제금액/총결제금액

2) 결제지연손해금 부과기준

자료: 한국은행

장외채권 및 기관간RP 거래의 경우 증권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분리결제의 비중이 2022년 3/4분기중 각각 1.3% 및 5.5%로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였다(그림 III-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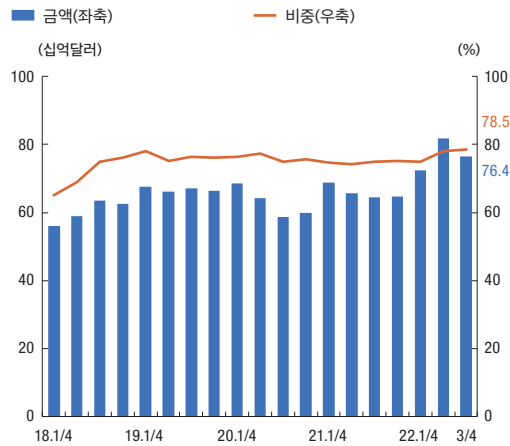
1) 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수취인에 대한 지급은 즉시 이루어지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금융기관 간 채권-채무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익영업일 지정시점(오전 11:00)에 결제되므로 금융기관 간 신용공여가 발생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리스크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참가기관들이 미결제순이체액의 상한, 즉 순이체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III-4. 분리결제 비중<sup>1)</sup>

주: 1) 장외채권 및 기관간RP 거래 결제금액 중 증권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하지 않은 결제금액 비중

2) 연쇄결제 차감 후 최종결제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그림 III-5. CLS시스템 이용 금액<sup>1)</sup> 및 비중<sup>2)</sup>

주: 1) 분기중 일평균,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2) 대상 외환거래 중 CLS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비중, 국내은행 및 외은지점 거래분

자료: 한국은행

## 외환결제시스템<sup>2)</sup>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 시스템)<sup>3)</sup>의 결제액은 2022년 3/4분기중 일평균 764.4억달러로 지난해(658.5억달러)에 비해 증가하였다.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 비중이 2022년 3/4분기중 78.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외환거래 관련 결제리스크는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III-5).

2) 외환결제는 은행간 환거래 네트워크, CLS은행이 운영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국내 외화자금이체시스템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결제규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CLS시스템을 통한 외환동시결제에 중점을 두었다.

3)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은행은 외환결제리스크의 근본적 발생 원인이 되는 각 국가간 시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통결제시간대(중부유럽시간 기준 07:00~12:00)에 집중하여 결제를 처리한다. CLS는 동 시간대에 각 통화별 중앙은행에 개설된 결제회원은행과 CLS은행 계좌간 실제 자금이체(자금 납입 및 지급)가 연속적으로 연계되어 결제됨을 의미한다. 현재 미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18개 CLS 결제통화의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거래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 포함)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